

절벽길 따라 봄마중... 세상시름 다 잊네



금오도 비렁길 3코스에서 내려다본 다도해 절경

비렁길을 안은 섬 여수 금오도

봄은 바닷길로 온다고 했던가. 바닷길로 오는 봄. 여수 백야도에서 남쪽으로 12km쯤 떨어진 금오도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 백도를 지나 봄이 오고 있다. 아직은 바람이 쌀쌀한 겨울 끝자락이지만 금오도에서 올망졸망하니 살아가는 150여 주민들의 일상은 봄 마중에 여념이 없다.

겹겹이 병풍을 치고 부끄러움에 붉어진 동백이 숨어 피는 질푸른 동백숲 터널,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하늘 향해 높게 솟아있는 가녀린 소사나무들, 솔향이 녹아내

은 명성황후가 살고 있던 명례궁에 하사했으며, 명례궁에서는 이곳에 사슴목장을 만들어 사람의 출입과 벌채를 금했다고 한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

여수 화정면 백야도에서 30분 남짓 배를 타고 주위에 크고 작은 섬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나라 21번째로 큰 섬이며, 수려한 다도해 조망과 해안가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금오도 비렁길'의 초입 함구미에 도착한다. 바로 이곳이 비렁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비렁'은 절벽의 순우리말 '벼랑'의 여수 사투리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본래는 주민들이 뽕감과 낚시를 위해 다니던 해안길이었다.

비렁길은 함구미에서 출발해 바다를 끼고 돌며 금오도가장 끝 마을인 장지까지 형성된 18.5km의 다섯 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도보로 6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완만한 경사 탓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함구미에서 용두, 두포, 직포로 이어지는 1~2 코스는 8.5km로 3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원시풍경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용두바위 부근과 미역널방의 경치는 금오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숲길로 들어서면 길옆 바위에 앙증맞게 붙어있는 풍란들이 어느덧 봄기운을 머금고 관광객들을 반겨준다. 20여분 남짓 아늑한 숲길을 걷다 보면 미역널방 전망대에 다다른다.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이곳에서 말렸다고 해서 이름붙은 미역널방은 높이가 해안에서 90m나 되는 아찔한 낭떠러지다. 눈앞에 펼쳐지는 은빛비늘 같은 매혹적인 다도해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미역널방에서 10여분쯤 발걸음을 옮기면 6000여평쯤 되는 평지가 나오는데 이곳을 마을주민들은 '절터'라고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보조국사 지눌이 모후산에 올라가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각한 새 세마리를 날려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한 마리는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 한 마리는 고흥군 금산면 송광암에 앉았다고 해 이것을 '삼송광'(三松廣)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진다. 고려 명종 25년(1195년)보조국사 지눌이 절을 세운 기록이 있어 이 절터를 송광사의 옛터로 추정하고



보기에도 아찔한 3코스 갈바람통 전망대옆 수직바위.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어 안내판만 자리하고 있지만 그 옛날의 위엄이 아직 살아 있는 듯하다.

두포를 지나 굴동 전망대에서 절벽사이로 우뚝 솟은 촛대바위를 거쳐 작포마을에 도착하니 몇 백년의 세월을 홀로 보낸 것이 아쉬운 듯 커다란 소나무가 반겨준다. 아름다운 절경에 시간을 지체한 탓일까? 뱃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3~5코스 종주는 무리라는 생각에 3코스 갈바람통 전망대에서 저 멀리 보이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바라보며 비렁길의 여운을 달랜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에서 금오도로 가는 뱃편은 계절과 당일 기상 조건에 따라 시간이 약간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오전 7시 30분, 10시 20분, 오후 2시33분 좌수영 해



절벽위에 설치된 데크.

운 신한 페리호가 하루 3왕차 운항되고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라면 금오도의 매봉산(382m)이나 망산(344m)을 추천한다. 일단 능선에 서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개도, 사도, 동산도 등 여수를 대표하는 여러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백나무,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며 이곳에서 보는 해돋이와 해넘이도 장관이다.

여수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총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 전망대, 출렁다리, 화장실, 음수대 등을 추가로 확충, 오는 5월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사진제공=여수시>

세월 따라 옛 이야기 따라 터벅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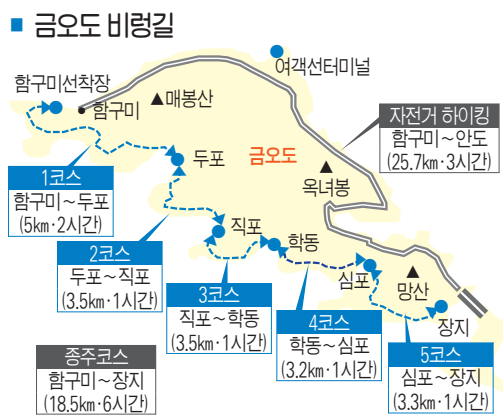
쪽빛 다도해 굽어보며 순수자연 만끽

내딛는 걸음걸음 봄을 기다리는 마음

리는 소나무 숲길, 한쪽은 산속 풍경 또 다른 한쪽은 원없이 바라볼 수 있는 푸른 바다다. 천혜의 절경을 지적에 감상하며 거닐 수 있는 '금오도 비렁길' 곳곳에는 저마다 전설을 간직한 섬터들이 기다린다. 아찔한 절벽 끝에 걸친 듯 한 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섬의 자연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흡족한 봄맛이가 된다.

자라를 닮은 섬이라 하여 이름 붙은 금오도(金鰲島).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은 예로부터 신비의 섬이자 자연의 보고다.

조선시대 공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임금의 관을 찌거나 관옥선 등 전선(戰船)의 재료인 소나무를 기르고 가꾸던 '황장봉산'(黃腸封山)이었을 만큼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곳으로 숲이 우거져 쉽게 보인다고 해서 '거무섬'으로도 불렸다. 고흥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